

NORMANDY

TOURISM



세일즈 매뉴얼



Honfleur © Rochagneux Fotolia.com

노르망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노르망디는 파리와 샤를 드골 국제 공항에서 차로 단 2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파리에서 기차를 타면 1시간 내로 노르망디의 주요 도시에 도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차여행에도 안성맞춤인 여행지입니다.

우리의 가치

환경과 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개인·집단 차원 이니셔티브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는 시대, 노르망디는 미래지향적 관광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광 상품을 개선하고 더욱 책임감 있는 관광 상품을 제공할 것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관광업 종사자들과 협업합니다. 협업을 통해 관광객 흐름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과 과잉 관광이 여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수년 내로 노르망디를 찾을 관광객들의 눈에 노르망디가 오늘날 시급한 사안이 무엇인지 알고 행동하는 지역으로 비치도록 만들겠다는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외젠 부댕(Eugène Boudin),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등 인상파 거장들에게 큰 영감을 준 노르망디는 지역 고유의 매력을 뽐내며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자유의 땅입니다. 노르망디를 주 여행지로 선택해 머무르시는 분, 프랑스 여행 일정 중 며칠만 노르망디를 방문하시는 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노르망디는 문화유산과 건축유산이 살아 숨 쉬고, 고유의 식문화를 갖추고, 숨 막히게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 여행지입니다.

우리는 고객 맞춤형 방식으로 여러분의 여행·숙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각종 참고자료를 제공해, 노르망디가 여러분께 더욱 친숙한 여행지로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시장 담당자:

사빈 파니에 (Sabine PANNIER)

아시아 및 해외 시장 담당자

s.pannier@normandie-tourisme.fr

전화: +33 7 63 73 76 50

이승하 (Lee Seungha)
ATOUT FRANCE (프랑스 관광청)
대리

Seungha.lee@atout-france.fr

전화: +82 2 776 - 9142

노르망디 지역 관광청 마케팅 부서



노르망디를 여행해야 하는 6가지 이유



수많은 관광 명소

노르망디는 몽생미셸 (Mont-Saint-Michel), 에트르타(Etretat), 루앙(Rouen), 르아브르 (Le Havre), 지베르니(Giverny), 르 아라 뒤 팡(Le Haras du Pin), 상륙 해변, 바이외 (Bayeux), 캉(Caen), 도빌(Deauville) 등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관광 명소로 가득한 지역이다.



인상주의의 발상지

변화무쌍한 날씨가 만들어내는 고유한 빛으로 유명한 노르망디는 19세기를 대표하는 미술사조, 인상주의의 요람이었다. 클로드 모네가 1872년 선보인 대표작 <인상, 해돋이>는 르아브르에서 완성됐다. 그 밖에도 외젠 부댕, 오귀스트 르누아르, 귀스타브 쿠르베, 카미유 피사로 등 수많은 인상주의 화가들이 노르망디에서 작품 활동을 펼쳤다. 노르망디의 여러 미술관은 프랑스 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컬렉션 다수를 소장하고 있다.



천 년 이상 이어져 온 오랜 역사

천 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거치며 노르망디는 뛰어난 건축유산과 문화유산을 구축했다. 노르망디 공국의 공작으로 훗날 잉글랜드의 왕이 된 '정복왕' 윌리엄 1세, 노르망디 공국을 보호하겠다는 일념으로 군사 요새를 지은 '사자심왕' 리처드 1세, 백년 전쟁 후기에 프랑스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 잔 다르크 등 여러 위인이 노르망디를 거쳐 갔다. 이들의 발자취는 수많은 고성과 박물관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미식의 도시

다양한 기후가 만들어내는 각양각색의 풍경을 자랑하는 노르망디는 카망베르, 시드르, 칼바도스 등 수제 먹거리와 프레살레 양고기, 생선, 조개 등 특산물로도 유명하다. 수많은 수제 식품업자와 레스토랑 셰프가 노르망디산 특산물을 찾는다.



느린 여행

모든 게 바빠 돌아가는 시대, 여행할 때조차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은 것을 봐야 한다는 마음에 시간에 쫓기게 되는 때가 많다. 그런 현대인들에게 노르망디는 '더 많은 것이 아닌 더 좋은 것을 보기 위해 여행하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노르망디에서는 주민들과 교류하며 이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듣고, 낙원 같은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분위기와 풍경을 만끽하고, 곳곳에 숨겨진 나만의 장소를 발견하고, 아담한 마을에서 친밀하고 유쾌한 순간을 즐길 것을, 다시 말해 여유롭고 느긋한 여행을 즐길 것을 권한다.



잊지 못할 경험을 안겨주는 여행지

노르망디는 몽생미셸만을 걸어서 가로지르고, 센강변을 향해하고, 인상주의 거장들처럼 노르망디의 풍경을 화폭에 담고, 노르망디산 식자재로 직접 요리해보는 등 다양하고도 특별한 경험을 즐기며 매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여행지다.

대표 명소



1 - 지베르니 Giverny

클로드 모네의 집과 정원을 비롯해 인상파 미술관이 있는, 한 폭의 그림처럼 예쁜 마을이다. 모네는 1883년부터 생을 마감한 1926년까지 지베르니에서 살며 직접 정원을 조성하고 아틀리에를 지어 작품 활동을 이어 갔다.



2 - 루앙 Rouen

목재 가옥, 포석을 깔 길,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예배당, 대성당 등 중세시대 양식이 돋보이는 건축물로 가득한 루앙 시내에는 클로드 모네를 비롯한 여러 화가와 작가에게 큰 영감을 제공했다. 순교자 잔 다르크 성당도 루앙 시내에 있다.



3 - 알바트르 해안 La côte d'Albâtre

석회암 절벽과 드넓은 자갈 해변이 만나는 알바트르 해안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풍경을 자랑한다. 야생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에트르타는 수많은 화가와 작가에게 영감을 가져다주었다.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장으로 선정된 디에프 시장이 열리는 디에프(Dieppe),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베네딕틴 리큐어의 생산지 페캉(Fécamp)에 들르는 것도 잊지 말자.



4 - 르아브르 Le Havre

현대성과 역동성이 어우러진 도시 르아브르는 해변에서 휴양을 즐길 뿐 아니라 오귀스트 페레(Auguste Perret)가 남긴 전후 건축 양식 또한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르아브르 도심은 2005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며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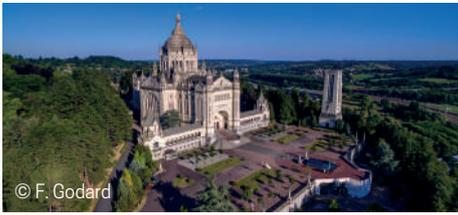
5 - 플뢰리 해안 La Côte Fleurie

벨에포크(Belle Époque) 시대를 재현한 빌라, 목재 가옥, 고운 모래로 뒤덮인 해변, 한 폭의 그림처럼 멋진 항구가 함께 어우러져 플뢰리 해안의 아름다움을 완성한다. 각기 다른 매력을 자랑하는 웡플뢰르(Honfleur), 트루빌쉬르메르(Trouville-sur-Mer), 도빌(Deauville), 카부르(Cabourg) 해변 리조트에서의 힐링 여행도 추천한다.



6 - 페이도주 Le Pays d'Auge

리지외(Lisieux) 방향으로 향하다 보면 도착하게 되는 페이도주는 시드르 로드와 치즈 로드로 유명하다. 총 길이 40km에 달하는 시드르 로드는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중 하나로 선정된 뵈브롱앙주(Beuvron en Auge)를 비롯한 전형적인 노르망디식 마을을 가로지르며 펼쳐진다. AOP 인증을 획득한 노르망디 3대 치즈인 리바로(Livarot), 카망베르(Camembert), 폰레베크(Pont-l'Évêque)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치즈 로드 여행을 추천한다.



7 - 리지의 Lisieux

프랑스 제1의 순례 도시 루르드(Lourdes) 다음으로 가장 유명한 도시인 리지외에는 20세기에 지어진 프랑스 최대 규모의 성당, 성녀 테레즈 대성당(Basilique Sainte Thérèse de Lisieux)이 있다. 15세의 어린 나이에 리지의 카르멜 수도원에 입회한 성녀 테레즈는 9년 뒤 수도원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다.



8 - 팔레즈 Falaise

윌리엄 1세의 출생지인 팔레즈는 대대로 노르망디 공작들의 거주지였다. 골목길을 산책하고 중세 도시의 고성을 둘러보고 성벽을 따라 걸으며 한적한 시간을 즐겨보자. 제2차 세계 대전기를 견뎌낸 시민들에게 오토이 헌정된 공간인 시민 전쟁기념관 방문도 추천한다.



9 - 캉 Caen

1,000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캉은 풍부한 문화유산을 자랑하는 도시다. 윌리엄 1세는 왕비 마틸다 플랑드르와 함께 고성을 비롯해 수녀원(l'Abbaye aux Dames)과 수도원(l'Abbaye aux Hommes)을 지었다. 20세기 전 세계가 함께 구축한 평화의 역사를 증언하는 캉 전쟁기념관(Mémorial de Caen)도 빼놓을 수 없는 명소다.



10 - 바이외의 Bayeux

바이외 타피스리(Tapisserie de Bayeux)로 유명한 바이외는 로마네스크 양식과 노르망디 고딕 양식을 담은 여러 건축물과 대성당 등 화려한 건축유산을 자랑하는 도시이기도 하다. 윌리엄 1세가 영국을 정벌하던 모습을 담은 바이외 타피스리 작품이 2007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11 - 상륙 해변 D-Day Landing Beaches

유타(Utah), 오마하(Omaha), 골드(Gold), 주노(Juno), 스워드(Sword)해변은 1944년 6월 6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쟁터로 변했다. 상륙 해변과 노르망디 전쟁기념관은 평화와 자유를 갈망한 당대인들의 숨결을 오늘날에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12 - 셰르부르 앙 코탕탱 Cherbourg-en-Cotentin

코탕탱반도 끝자락, 야생의 한가운데 자리한 셰르부르 앙 코탕탱에는 길이가 4km 달하는 세계 최대 인공 정박지가 있다. 바다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이곳의 역사는 해양 박물관에서 더욱 자세히 배울 수 있다.



13 - 몽생미셸만 La Baie du Mont-Saint-Michel

1979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몽생미셸만 지대는 프랑스를 찾는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관광지 중 하나다. 유럽에서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 '서양의 불가사의'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평소에는 바닷물이 찬 만의 모습을 하고 있다가 조석 상수가 110을 넘기는 순간 다시 섬이 되기 때문이다. 만과 섬의 형태를 오고가는 몽생미셸에는 불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자연을 좋아하는 이들은 썰물 때는 바다를 가로질러 건너는 신기한 경험을 즐기고 염생습지에서 자유롭게 풀을 뜯는 양 떼도 구경할 수 있다. 박물관 애호가에게는 아브랑슈(Avranches) 고문서 박물관과 그랑빌(Granville) 크리스티앙 디올 박물관 관람을 추천한다.



14 - 바늘 드 로른 Bagnoles-de-l'Orne

노르망디에서 유일한 온천 지대이자 벨레포크 시대의 건축 양식이 돋보이는 매력적인 도시다. 온천과 숲, 골프장을 비롯해 카지노와 경마장도 있어 취향에 맞춰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완벽한 여행지다.



15 - 알랑송 Alençon

성녀 테레즈의 고향이자 과거 공작들의 거주 도시였던 알랑송은 17세기부터 발전한 알랑송 레이스로도 유명하다. 2010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알랑송 레이스의 섬세함과 예술미를 더욱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알랑송 레이스 박물관에서 그 역사와 가치, 노하우를 배워볼 것을 추천한다.



16 - 르 아라 뒤 팡 Le Haras du Pin

프랑스의 우수한 말 사육 기술을 대표하는 도시다. 태양왕 루이 14세의 명으로 1715년 완성된 베르사유 뒤 슈발(Versailles du Cheval)은 프랑스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높은 위엄을 자랑하는 국립 종마사육장이다.

NEW: 노르망디 익스피리언스

‘노르망디 익스피리언스’란?

강렬한 순간을 체험하며 노르망디식 라이프스타일과 노하우를 경험하고 노르망디의 여러 명소와 스포츠를 적극적으로 구경하며 즐기는 여행을 뜻한다. 한 개인의 정체성은 감각을 자극하는 독특한 경험들(expériences)로 완성된다. 여행객과 투어 진행자 사이에도 인간적이고 따뜻한 교류를 나누는 경험이 쌓이게 된다. 고유의 매력을 자랑하는 노르망디 여행은 경험으로 완성된다.

미식 자전거 여행



© LumieresMarinesProd

런닝 & 관광



© MA. Thierry

베네딕틴 (Palais Bénédictine)



© B. Collier

디데이 해변의 멀베리 항구에서 카약 체험



© T. Le Floc'H

노르망디 느린 여행 추천 명소



© M-A. Thierry

옹플뢰르와 시드르 로드

요트 정박지가 있고 색색의 오래된 가옥이 즐비한 매력적인 마을, 옹플뢰르의 바닷물결은 인상주의 작품 속 풍경처럼 아름답다. 옹플뢰르 외젠 부댕 미술관에서는 인상파의 선구자 외젠 부댕의 작품 여러 점을 감상할 수 있다. 고지대에는 클로드 모네가 자주 머물렀던 별장으로, 오늘날 숙박과 음식을 제공하는 매력적인 호텔로 변모한 생 시메옹 별장(Ferme Saint Siméon)이 자리 잡고 있다. 수준 높은 음식을 즐기고 싶은 미식 여행객에게는 강어귀가 내려다보이는 탁 트인 전망을 갖춘 미식 레스토랑 레쟁프्रेस시오니스트(Le Impressionnistes)를 추천한다. 페이도주에 왔다면 총 길이가 40km에 이르는 시드르 로드를 탐험하지 않을 수 없다. 현지 양조장에 들러 시드르, 칼바도스, 포모(pommeau) 등 노르망디 대표 전통주를 시음하며 제조 비결도 배워보자. 옹플뢰르와 인접해 바다 옆에 자리 잡은 양조장 마누아르 드 아프르발(Manoir d'Apreval)은 칼바도스 제조법을 궁금해하는 방문객을 따스하게 맞이한다. 브루이 성(Château du Breuil)에서는 녹지 공원을 산책하고, 17세기부터 전해 내려오는 술 창고를 둘러보고, 시각각 프로젝트 작품도 감상할 수 있다. 페이도주에서 며칠 더 머무르며 차분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여유롭게 즐기는 것도 추천한다. 현지인이 운영하는 숙소에서 숙박하면 현지 관광명소를 친절히 안내받고, 주변의 구경할 만한 현지 제조업체도 추천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시드르 로드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AOP 인증을 받은 노르망디 3대 치즈인 카망베르, 리바로, 폰레베크 제조소가 있다. 치즈 제조 비법을 배우고 싶다면 참고하자.

외젠 부댕 미술관: www.musees-honfleur.fr/musee-eugene-boudin/visite-du-musee.html
 생 시몽 별장 - 레스토랑 레쟁프्रेस시오니스트: www.relaischateaux.com/us/france/restaurant/la-ferme-saint-simeon-calvados-honfleur
 마누아르 드 아프르발: www.apreval.com/apreval-gb
 브루이 성: chateau-breuil.info/en/home/
 시드르 로드: routeducidre.com/?lang=en
 노르망디 치즈 로드: www.routedesfromagesdenormandie.fr



© M-A. Thierry

지베르니에서 레장들리까지 이어지는 인상파 거장들의 발자취

지베르니는 클로드 모네가 1863년부터 삶을 마칠 때까지 살았던 곳이다. 이곳에서 사는 동안 모네는 일본 정원과 연못을 직접 꾸미고, 유명한 <수련> 시리즈도 완성했다. 클로드 모네의 집과 정원은 지베르니를 방문했다면 반드시 들러야 할 곳이다. 인상주의 작품을 소개하는 상설전과 특별전이 열리는 지베르니 인상파 미술관 관람도 잊지 말자. 점심 식사 장소로는 오베르주 보디(Auberge Baudy)를 추천한다. 폴 세잔, 알프레드 시슬리 등 당대 거장들이 묵었던 구 보디 호텔(Hôtel Baudy)을 새롭게 단장해 조성한 식당이다. 수준 높은 요리를 맛보고 싶다면 미술관 1스타 레스토랑 르 자르댕 데 플뮴(Le Jardin des Plumes)을 추천한다. 다비드 갈리엔 세프가 인상주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 완성한 메뉴를 선보인다. 지베르니 구경을 마쳤다면 인상파 화가들에게 크나큰 영감을 가져다준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며 센강변을 따라 자전거 페달을 밟아나가 보자. 마지막 정착지는 가이야르 성(château Gaillard)이 있는 레장들리다. 중세시대 세워진 군사 요새 가이야르 성은 노르망디 공국을 보호하겠다는 리처드 1세의 용맹한 의지에 따라 단 1년 만에 완공되었다. 방문객 출입이 자유롭게 가능한 가이야르 성안에서 센강 계곡의 장엄한 경관을 감상해 보자.

클로드 모네의 집과 정원: fondation-monet.com/en
 오베르주 보디: www.restaurantbaudy.com
 지베르니 인상파 미술관: www.mdig.fr
 르 자르댕 데 플뮴: jardindesplumes.fr
 센강 자전거 여행: www.laseineavelo.com
 가이야르 성: www.lesandelys-tourisme.fr/chateau-gaillard



© T. Verneuil

숨 막히게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코탕탱

신선한 공기로 가득한 대자연을 사랑한다면 노르망디 여행 일정에 코탕탱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 유럽 내 장거리 도보 여행로 GR루트(Grande Randonnées)의 223번째 길을 뜻하는 GR 223은 코탕탱으로 향하는 길로 투르 뒤 코탕탱(Tour du Cotentin)이라 불린다. 이즈니쉬르메르(Isigny-sur-Mer)에서 몽생미셸까지 뻗은 GR 223에서는 25일이 넘는 일정으로 하이킹을 즐길 수 있어 하이킹족에게 안성맞춤인 구간이다. 라신항(Port Racine)이 있는 GR 223을 따라 걸으면 조용한 만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네 드 조부르(Nez de Jobourg)가 자리 잡은 곳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천연 해양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 하이킹 도중 세르부르 앙 코탕탱 해양박물관에 들르고, 해양도시에서만 볼 수 있는 깊고도 드넓은 바다 풍경을 감상하고, 지역 명소인 세르부르 우산 제조소도 방문할 것을 추천한다.

GR 223: www.encotentin.fr/aventure/randonnees/gr-223
 라신항: www.encotentin.fr/explorez/top-destinations/port-racine
 네 드 조부르: www.encotentin.fr/patrimoine-naturel/nez-de-jobourg
 해양박물관: www.citedelamer.com/en/
 세르부르 우산 제조소: parapluiedecherbourg.com/en/visiting-the-manufacture



© M-A. Thierry

루앙(Rouen)과 센강 계곡

루앙은 노르망디를 여행한다면 반드시 들러야 할 도시 중 하나로, 다양한 테마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여행지다. 인상파 화가들의 발자취를 따라 걷거나, 중세부터 이어지는 역사를 간직한 시내를 거닐거나, 도시의 랜드마크를 방문해볼 것을 추천한다. 점심·저녁 식사는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음식점인 라 쿠론(La Couronne)에서 해결하자. 구불구불한 센강변을 따라 르아브르를 향해 여정을 계속해 보자. 라 부이유(La Bouille) 마을이나 쥐미에주 수도원(Abbaye de Jumièges)터처럼 크게 알려지지 않은 곳에 잠시 들러 쉬어가는 것도 좋다. 루앙-르아브르를 오가는 길은 아름다운 숲과 초원으로 가득하다.

루앙 관광 안내사무소: en.rouentourisme.com | 루앙 가이드 투어 안내: en.rouentourisme.com/with-a-guide
 라 쿠론: www.lacouronne-rouen.co.uk | 쥐미에주 수도원: www.abbayedejumieges.fr

잊지 못할 만남과 풍부한 경험으로 가득한 노르망디 여행



© A. Poitier

다가오는 노르망디 주요 행사 소식



© RNTC JF Lange

귀스타브 플로베르 탄생 200주년 Bicentenaire de Gustave Flaubert 2022년 6월까지

2021년은 프랑스 소설가 귀스타브 플로베르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해다. 노르망디가 낳은 문호 플로베르는 작품 속에 노르망디의 풍경을 녹여내며 고향을 향한 애착을 드러냈다. 플로베르의 삶과 문학작품을 기념하는 전시회, 공연, 콘퍼런스, 교육 활동, 가이드 투어, 연극 투어 등 200개 이상의 다양한 이벤트가 2022년 6월까지 노르망디 전역에서 개최된다. 플로베르를 주제로 한 다양한 관광 상품에 관한 정보를 더 얻고 싶다면 지역 내 여러 관광 안내소에 문의해 보자.

www.flaubert21.fr



© E. Bernard

페캥 그랑드 에스칼 Fécamp Grand'Escale 2022년 6월 29일~7월 3일

작은 요트, 대형 함선을 막론하고 모든 선박을 맞이하는 페캥 선박 축제, 제1회 페캥 그랑드 에스칼이 2022년 최초로 막을 올린다. 전통 조선 방식으로 만들어진 선박과 오래된 배, 노르망디와 브르타뉴뿐 아니라 저 멀리 북유럽에서 온 선박이 모두 페캥 항구에 모여 알바트르 해안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장관을 볼 수 있는 기회다. 5일 동안 계속되는 페캥 그랑드 에스칼은 각종 액티비티와 이벤트, 콘서트,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방문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www.fecampgrandescale.com



© T. Verneuil

르 아라 뒤 팡 국제마차경연대회 Championnat du Monde d'Attelage, Le Haras du Pin 2022년 8월 25~28일

제1회 국제마차경연대회가 르 아라 뒤 팡에서 열린다. 2022년 최초로 막을 올릴 이 특별한 대회를 위해 20개국 출신 80명의 선수가 벌써 참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모든 일반 대중이 자유롭게 대회를 관람할 수 있다.

www.haras-national-du-pin.com



© E. Tessier

2023 루앙 아르마다 선박 축제 Armada 2023, Rouen 2023년 6월 8~18일

아름다움과 위엄을 자랑하는 배들이 모이는 대규모 항해 축제다. 축제가 열리는 10일간 센강변을 따라 약 7km에 걸쳐 줄지어 정박해 있는 배 50여 척의 모습을 무료로 구경할 수 있다. 아르마다 축제의 피날레는 축제에 참가한 모든 선박이 함께하는 대규모 센강 유람 퍼레이드다.

www.armada.org

NEW!

박물관, 유적지, 관광지



도빌에 새롭게 문을 연 레 프랑시칸 스캔 문화·미디어센터 - OPEN!

도빌 해변 가까이에 자리 잡은 레 프랑시칸은 박물관, 강당, 미디어테크를 아우르는 신설 문화공간이다. 박물관에는 화가 앙드레 앙부르가 도빌시에 직접 기증한 작품 500점이 소장되어 있다. 회랑 안뜰을 가득 밝히는 샹들리에와 복원된 수도원도 레 프랑시칸에서 볼 수 있는 명소다.

lesfranciscaines.fr/en



카부르 빌라 뒤 탕 르투르베 La villa du Temps retrouvé - OPEN!

'되찾은 시간'을 뜻하는 빌라 뒤 탕 르투르베는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가 자주 찾았던 카부르의 빌라를 보존해 조성한 곳이다. 카부르 시내 중심부에 새롭게 자리 잡은 이 몰입형 박물관은 벨레포크 시대의 분위기를 그대로 재현한다. 마르셀 프루스트의 눈에 비친 플뢰리 해변의 모습도 감상할 수 있다. 프루스트는 카부르에서 큰 영감을 얻어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등장하는 가상의 도시 발벡과 노르망디 해수욕장을 창조했다.

cabourg-tourisme.fr/en

신작을 상영하는 아로망슈 360도 영화관 Cinéma Circulaire Arromanches 360°

아로망슈 고지대에 조성된 360도 영화관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연합군이 건설했던 2개 인공 항구 중 하나인 터가 내려다보이는 고지대에 있다. 현재 이곳에서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야기를 담은 19분 길이의 신작 <100일간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 Les 100 jours de la Bataille de Normandie>를 상영하고 있다. 이번 신작은 영국, 캐나다,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여러 참전국이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도 함께 소개한다.

arromanches360.fr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더욱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강 전쟁기념관도 함께 방문할 것을 추천한다.

normandy.memorial-caen.com

호텔

©V. Joannon

● 생 델리스 호텔 Hotel Saint-Délis - OPEN

화가 생 델리스의 옛 거처를 개조해 만든 생 델리스 부티크 호텔은 시크하면서도 따스한 분위기로 투숙객을 맞이한다. 총 9개 객실을 비롯해 스파와 터키식 목욕탕도 갖춰 웰빙 여행에 안심할 수 있는 숙소다. 날씨가 좋으면 테라스에서 조식을 즐겨보자. 옹플뢰르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도심에 위치하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다. hotel-saint-delis.fr/en/

● 펜드피 레 자르맹 드 코펠리아 호텔 Les jardins de Coppélia - OPEN

옹플뢰르에서 수 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펜드피(Pennedepie) 마을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호텔이다. 환경친화적 방식으로 전체 리노베이션을 거친 레 자르맹 드 코펠리아는 기존 호텔과는 전혀 다른 형태를 자랑하면서 과거와 현대를 조화롭게 연결 지은 매력 또한 뽐낸다. 디자이너의 손에서 완성된 27개 객실, 미식 레스토랑과 스파 등 부대시설을 비롯해 오션뷰까지 갖췄다. 투숙객에게 잊지 못할 숙박 경험을 제공하고자 만반의 준비를 마친 호텔이다. jardins-coppelia.com/fr/

● 유 아 도빌 You are Deauville - OPEN

도심에 혁신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하는 호텔업체 유 어번 홈(YOU Urban Home)의 노르망디 1호점인 유 아 도빌. 총 57개 객실을 갖춘 이곳은 따뜻한 분위기와 인터넷 연결망을 갖춘 편안한 주거공간을 선보인다. 커플 여행객, 1인 여행자, 출장객 등 각 유형의 고객에게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도심 일지까지 갖춘 최고의 숙소다. en.you-urbanhome.com/

● 레 마누아르 데 포스트 드 도빌 Les manoirs des Postes de Deauville - OPEN

도빌과 트루빌에서 단 10분 거리에 있는 호텔로, 스위트룸과 별채를 포함한 총 27개의 객실을 갖췄다. 목가적인 분위기와 우아한 주변 환경을 찾는 이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유니크한 숙소다. www.portesdedeauville.com/en/

● 루앙 센터 라디송 블루 호텔 Radisson Blu Hotel Rouen Centre - OPEN

잔 다르크 탑을 마주 보는 라디송 블루 호텔 루앙 센터점은 93개의 객실과 스위트룸을 갖췄다. 루앙의 모든 관광명소와 가까울 뿐 아니라 중세 보행자 거리와도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있어 뛰어난 관광 편의성을 자랑한다.

www.radissonhotels.com/en-us/hotels/radisson-blu-rouen-centre



● **라아브르 힐튼 가든 인 Hilton Garden Inn - Le Havre - 2022년 가을**
라아브르 정박지 맞은편에 곧 문을 열 4성급 호텔이다. 106개 객실을 비롯해 피트니스 룸, 2개 회의실, 콘셉트 스토어 겸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선보일 예정이다.

● 옹플뢰르 엔비타시옹 오 부아야주 L'invitation au Voyage - Honfleur - 2022년 여름

옹플뢰르 구항과 아주 가까운 도심에 터를 잡은 새로운 부티크 호텔, 인비테이션 오 부아야주는 16개의 객실과 3개의 스위트룸, 레스토랑을 갖춘 예정이다. www.honfleur-tourism.co.uk/

● **루앙 하얏트 플레이스 호텔 Hyatt Place Hotel - Rouen - 2022년 여름**
19세기 지어진 오래된 학교 건물이 78개의 객실, 최대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과 미팅룸, 수영장을 갖춘 호텔로 다시 태어난다.

● 페캉 호텔 앤드 스파 Hotel and spa - Fécamp - 2023년

페캉 수산박물관 옆 항구에 터를 잡아 새롭게 개장할 4성급 호텔. 완공 후에는 총 100개의 객실과 2개 레스토랑, 넓이 1,500m²의 스파를 선보일 예정이다.